

**한·중,
항공기·자동차
산업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와 항공기, 통신, 고화질 텔레비전(HDTV),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북경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3차 韓-중경제차관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李錫采 재경원 차관과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葉靑 상무부 주임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간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원과 국가계획위원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두 부처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정책토론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경제발전 현황과 향후 경제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대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중국은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5개년계획(96~2000년)의 세부내용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通産部,
항공기 輸出協定 추진**

통상산업부가 9월 20일(水) 개최되는 관계기관(업체)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항공기 및 동부부분품 수출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동 협정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통산부, 외무부, 건교부, 공진청 등 정부기관과 KARI(항공우주연구소), ECKC(중형항공기 설계센터) 등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관련기관 및 항공우주협회, 금호,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선적으로 對美 수출협정 체결을 추진키 위한 협의를 가졌다.

동 수출협정은 국가간 외교적 실무기술 행정 협정으로 항공기 및 동부부분품 수출시 수출국의 인증체계가 수입국의 감항성기준(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관련 제품 생산의 필수절차인 인증을 수출국에서 수행함으로써 수출입 당사국 모두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게 된다.

이같은 양국간 협정은 현재 세

계 대부분 국가에서 항공기 관련 제품 수출입시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BAA(Bilateral Airworthiness Agreement)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은 연방항공규정(FAR)에 의거 부문(Category)별로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동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27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通産部, 中型航空機
사업 운영요령 告示해**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31일(木)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제정,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87호, '95.8.31)했다.

동 요령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협약체결, 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보고서 제출 평가 등 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과 동등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지원정도 및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장기 간에 걸쳐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

되며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국제공동개발 방식에 따른 합리적 사업운영 등 특별한 사업관리가 요구되어 그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통산부는 동 운영요령의 제정과 함께 세부수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한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도 마련했으며, 동 개발사업 관련 제반 규정집을 발간, 관련기관 및 업체에 홍보함으로써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영요령은 94년 11월 고시한 중형항공기 운영지침을 몇가지 고쳐 운영요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그동안 중형항공기 운영지침은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의 하위규정으로 제정되어 시행돼 왔으나 중형항공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지침을 요령으로 격상하고 동시에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중형항공기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등 계상기준을 확대하며, 합작회사 운영비용, 마케팅 및 Product Support 관련비용 등 비목을 신설해 줄것이 항공우주협회에 의해 공식 건의됐었다.

또 정부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pool제로 운영토록하고 사업비 잔액이 발

생할 경우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관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개정, 본 사업으로 이월토록 해줄것을 건의했었는데 두번째 건의사항인 신규 비목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건의안이 수용된 것이다.

〈항공우주 94년 12월호 참조〉

KIET, 항공기 部品산업 發展方向 제시해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우리나라 항공기 부품산업의 발전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 및 동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항공기 부품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동 산업의 생산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동 보고서는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등 관련 업체 연수 및 생산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항공기산업의 최근동향과 생산구조,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의 생산과정 분석, 항공기 부품산업과 품질인증, 항공기 부품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이

기체분야에 편향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결과 동 분야에 대해 경쟁적으로 중복투자가 유발되고 있고, 산업 하부기반 미비에 따른 비효율적 원자재 수입 지속과 품질인증체제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동 부품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부품 극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기체(機體)중심의 생산구조를 보기(補機) 전자(電子) 엔진 소재(素材) 등으로 확산시켜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함께 산업의 하부기반 강화를 도모 ▲부품업체간 분업과 설비의 공동활용을 통해 전문업체를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원자재의 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지금까지 개별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비용 시간 인력을 절감 ▲시급한 국가적 차원의 품질인증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업체들의 품질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과의 상호감항성협정을 조속히 체결 ▲군 민용 완제기 적도입에 대응한 절충교역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